

인공지능의 도전에 기반한 인터넷 문학 및 HCI 글쓰기 실습

소연군 (邵燕君)
북경대학교 (北京大学)

초록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탄생된 문학 형식인 인터넷 문학은 전통적인 종이 기반 문학과 구별되는 다른 기본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인 AIGC(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Content)의 기본적인 논리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컴퓨터의 협력이 주류가 되면서, Chat-GPT 와 같은 기술의 등장은 인터넷 문학 창작에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토하며, 베이징대학교 인터넷 문학 연구팀과 인공지능 글쓰기 소프트웨어 차이윈샤오멍(彩雲小夢)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HCI 를 시도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문학 분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인공 지능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학적 창작 분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만약 AI 가 글쓰기 능력을 갖춘다면, 인간은 여전히 글을 쓸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가? 인간은 컴퓨터에 비해 더 능숙하게 글을 쓸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특히 전통적인 종이 문학에 비해 인터넷 문학이 더욱 시급하고 직접적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인터넷 문학이라는 특별한 형태는 인터넷을 매개체로 사용하므로, 그 기본 논리는 인공 지능과의 상호작용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현재 인터넷 문학의 주류 형태인 네트워크 소설은 특정한 패턴과 구조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패턴은 AI 에 의한 글쓰기로 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면에, 인터넷 글쓰기는 인공 지능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글쓰기 형태를 초월한 새로운 글쓰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문학은 기술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경계를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창조성과 기계의 능력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인공 지능의 기본 논리와 문학적 글쓰기에 대한 핵심 도전

현재, 학계의 다수 연구자들이 인류 문명 단계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ChatGPT(이하 GPT로 약칭)의 등장으로 보여주는 인공 지능 기술의 혁신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GPT가 성공적으로 인공 지능과 자연언어 처리 간의 복잡한 장벽을 극복하고, 인간 두뇌 외의 지능 모체 플랫폼을 인간의 자연언어 처리 능력에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혁신은 인류 문명의 기본 논리와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현대 과학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현재의 인류 문명은 인간의 두뇌를 기반으로 한 자연언어 문명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자연언어와 인공언어라는 두 가지 언어 패러다임 간의 복잡한 경쟁과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¹⁰. 자연언어는 그 자체로 무한한 풍부함, 독특함, 생동감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정서를 반영하며, 근대 이후 민족 국가의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언어의 모호성, 불분명성, 비논리성은 과학적 철학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없었다. 현대 과학의 출현과 함께, 특히 현대 철학이 언어학적 방향으로 전환된 이후, 인간은 더 정확한 추론과 논증을 수행하기 위해 인공언어 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학 언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러한 인공언어의 대표적인 예로, 그들은 엄밀한 논리와 구조를 통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있다¹¹.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 언어 또한 인공언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특정 학문이나 산업 분야에서의 정확한 의사소통과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언어와 인공언어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내며, 두 언어 체계 간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의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

인공언어는 과학 연구와 다양한 전문 업무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인문학 그리고 문학 예술 분야 등은 여전히 자연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GPT의 출현은 이 두 언어 체계 사이의 연결을 증진시킨다. GPT는 자연언어의 생성적 특성을 모방하고, 인간과의 복잡한 대화를 가능케 하는 자연언어 처리 AI 시스템으로서 기능한다. 이

¹⁰왕싱푸(汪行福), "포스트 휴먼 문명 시대의 도래와 ChatGPT의 궁극적 문제", 『탐구와 논쟁(探索与争鸣)』, 5호, 2023.

¹¹ 인공언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에스페란토와 같은 국제 보조언어고, 둘째는 전보 코드, 신호등 기호와 같은 특별한 용도의 언어 코드다. 셋째는 특정 과학 기술 분야를 위해 설계된 기호 시스템이다.

러한 기술의 발전은 자연언어와 인공언어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두 언어 체계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을 촉진시킨다.

매클루언의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 이론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창조된 모든 도구는 인간의 특정 기능이나 기관의 확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¹². 이 관점에서 보면 AI는 인간 두뇌 신경망을 모방하고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GPT는 인간의 자연언어 대화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GPT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인간 두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언어 처리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GPT의 등장은 인간 두뇌 기능과 자연언어 사이의 전통적인 연결을 재구성하였으며, 자연언어 대화 플랫폼인 대인관계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인류 문명의 기본 논리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메가 데이터베이스, 즉 인간의 지식 저장소와 컴퓨터의 슈퍼 연산 능력(사고력)이 결합됨으로써 언어 생성 모델의 능력은 인간의 언어 능력을 크게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현상은 확률적 성격을 지니며, AI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응답은 방대한 매개변수와 대규모 클러스터를 활용한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이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모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일한 위로가 된다. "예컨대, '세계화'라는 개념은 2000년 이후에 제시되었으므로, 2000년 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는 스스로 세계화라는 개념을 창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는 우리를 안심시킬 수 없다. 현재 AI의 데이터는 이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GPT의 편리함과 개방성으로 인해 '집단 지혜(集体智慧)'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우리는 이제 수십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경쟁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AI 자체가 혁신하지 않을지라도 수십억 명 중 한 명만이라도 혁신한다면 그것은 전체 시스템이 혁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 외에, 우리가 천재적인 창조로 간주하는 혁신은 이미 데이터 홍수 속에 녹아든 과거의 물보라일 가능성이 높다.

문학 창작자들에게 GPT는 두 가지 '궁극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는 자연언어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상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영역으로 혁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반드시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¹² 【캐나다】 마셜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연장』(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1964*), 초판 서문, 4쪽, 허도관(何道寬) 옮김, 번역출판사, 2011년 7월

2. 인터넷 문학의 근본적 논리와 인간과 컴퓨터의 협업 가능성

인터넷 문학의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특성이 문학 형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탐구에 주목하였다. 이후, 중국 네트워크 문학이 초상업화된 장르 소설로 발전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대중 문학의 논리에서 이를 '대중 문학의 네트워크 버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장르 소설의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문학은 종이 문학과는 별개의 근본적 논리를 가지며, 이 논리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에는 왕위쑤(王玉珣), 왕신(王鑫), 가오한닝(高寒凝) 등 젊은 학자들이 '디지털 인공 환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인터넷 문학의 기본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³.

'디지털 인공 환경'이라는 개념은 일본 학자 아즈마 히로키의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 환경' 이론¹⁴과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인공 환경' 및 '인간의 상황'에 대한 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¹⁵. 왕신은 이를 '인간과 사물(자연)이 모두 인터넷에 의해 통제되는 환경'으로 해석하였다¹⁶.

왕위쑤는 이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세밀하게 정의하였다. 하나는 인류의 생존 기술 환경, 즉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과 함께 인간은 현실 세계와 가상 네트워크 세계의 이중 구조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서사적 문예 작품의 새로운 상상력 환경, 즉 새로운 문학 세계를 설명하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왕위쑤는 '디지털 인공 환경'에 기반한 내러티브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모듈화' 설정 내러티브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캐릭터 설정, 캐릭터 간 관계 설정, 세계 설정, 스토리 라인 등을 포함하며, '모듈화'는 이러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¹⁷. "이러한 모듈화의 개념을

¹³ 왕위쑤(王玉珣), 『새로운 세계를 코딩하다: 게임화 방향의 인터넷 문학』, 중국문학예술출판사, 2021년 3월; 가오한닝(高寒凝), 『로맨틱 2.0: '여성 중심' 네트워크 문화 속의 친밀한 관계』, 중국문학예술출판사, 2022년 8월; 왕신(王鑫), 『웃음거리 만들기: 디지털 인공 환경에서의 언어와 주체』, 베이징대학교 중국어학과 박사 학위 논문, 2022년 6월 심사 통과했음. 샤오옌진(邵燕君), "디지털 인공 환경과 인터넷 문학의 전문 비평", 『중국 문학 비평』, 4호, 2023 (출간 예정) 참조.

¹⁴【일본】히가시 히로키, 『동물화된 포스트모더니티 2: 유희적 리얼리즘의 탄생』, 황진룡(黄锦容) 옮김, 당산출판사(중국 대만에서 출판된 번역본), 2015.

¹⁵【미국】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인간의 처지』(The Human Condition, 1958), 왕인리 옮김, 상하이 인민 출판사, 2017년 4월.

¹⁶ 왕신(王鑫), 『웃음거리 만들기: 디지털 인공 환경에서의 언어와 주체』

¹⁷ 왕위쑤(王玉珣), 『새로운 세계를 코딩하다: 게임화 방향의 인터넷 문학』, 후기, 299—305 쪽.

이해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내러티브 작품을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양한 코드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코드들은 다시 조합되어 패키징하여 보다 더 복잡한 도구로 캡슐화될 수 있다. 작은 모듈이 더 큰 모듈을 구성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이러한 모듈들은 분류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불러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듈화라고 한다.¹⁸⁾

가오한닝은 '디지털 인공 환경'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구축한 '친밀관계 실험장'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인공 환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실험장은 '여성'의 특정 범주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방콕족' 성향이 있는 '멍(萌, 귀여움 상징)요소'와 구분하기 위하여, 그녀는 이 지향점을 '친밀관계 요소'로 대체하였다¹⁹⁾. 팬들은 '멍(萌)요소'로 표현되는 친밀한 관계 요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캐릭터 매칭(CP)' 방식을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탐구하는 사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특정한 알고리즘 공식을 따라 수천 번의 반복된 실험 행위를 통해 '취향적 소셜'과 '참여적 문화'의 분위기가 더해진 팬 커뮤니티에서 다양하면서도 조직적인 '친밀한 관계 실험장'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준다²⁰⁾.

가오한닝의 "매칭(페어링) 알고리즘"은 내러티브 구조의 한 형태로, 왕위쑤의 "모듈화 내러티브"와 연결시켜 보면, "디지털 인공 환경"의 기본 논리와 문학적 내러티브 모드가 보다 완전히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인공 환경'은 인간의 욕망(공상)이 네트워크 미디어에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환경 내에서 인간의 '자연적' 욕망은 단순히 확장되거나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태그화, 규칙화, 체계화되며, 점차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재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문학의 운영은 반자동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종이 문헌의 디지털화에는 복잡한 마크업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네트워크 문학은 그러한 과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네트워크 문학의 각 요소, 예를 들어 멍(萌)요소(친밀한 관계 요소), 배경, 유머 등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디지털화된 시스템에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문학 생성 방식의 장단점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으나,

¹⁸⁾ 왕위쑤 (王玉琿), 「설정과 그 아이러니 - 현대 대중 문학에서 디지털 인공 환경에 주어진 내러티브 형식」, 문학과 예술 연구(출간 예정)

¹⁹⁾ 가오한닝(高寒凝), 『로맨틱 2.0: '여성 중심' 네트워크 문화 속의 친밀한 관계』, 51 쪽.

²⁰⁾ 가오한닝(高寒凝), 『로맨틱 2.0: '여성 중심' 네트워크 문화 속의 친밀한 관계』, 51 쪽.

‘디지털 인공 환경’에 기반한 네트워크 문학의 기본 논리는 인공지능의 기본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네트워크 문학 맥락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협업은 불가피한 현실로 부각되며, 이러한 협업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지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깊게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글쓰기의 초보 실습

루쉬칭(路绪清)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AI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아직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의도 식별을 정확히 실현함과 동시에 특정 논리 및 스타일에 따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식의 기록, 전달 및 생성을 위한 새로운 매개체로서 역할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류 집단이 협력할 경우, 지식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모델이 일반적인 이해 능력과 대규모 처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새로운 생산성 도구로서 사회 발전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루쉬칭은 인공지능 발전의 궁극적인 결과는 인간과 로봇 간의 이원적 대립의 통합 형태로 인간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컴퓨터에 피드백을 주면 컴퓨터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로써 AI는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문학 창작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은 초급 수준의 문학 작품을 완성하고 특정한 문체의 구사가 가능하다. 이는 세계 설정²¹, 캐릭터 설정, 캐릭터 간의 관계 설정, CP 명요소 (친밀한 관계 요소) 조합 등 복잡한 문학적 요소를 프롬프트 단어 (prompt)로 입력한 다음 특정 유형의 웹소설과 같은 네트워크 문학 작품을 대량으로 입력하고 반복적인 디버깅을 통해 최적화하며, 그 결과에 의한 작품은 ‘건초’나 ‘곡식’ 수준²²에 도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특정 문체를

²¹ 세계 설정은 특정 규칙, 배경 및 조건이 있는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설, 영화, 게임 또는 기타 예술 형식에서 스토리의 특정 설정과 틀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 세계 설정의 중요성은 캐릭터를 구축하고, 플롯을 발전시키며, 독자나 시청자에게 더 깊고 사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역자 주)

²² 인터넷 독자들은 한때 인터넷 포럼인‘용의 하늘’에 자발적으로 베스트 글 추천 목록을 설정하였는데 글의 품질은 ‘선초, 곡식, 건초, 독풀’등과 같이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불멸의

가진 글의 생성 능력도 있을 것이다. 즉, 어느 '대작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문체로 글을 생성할 수 있다.

둘째, 빅 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글쓰기 소프트웨어는 문학 창작 작업에 보조 역할을 한다.

현재 작가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청과 글쓰기(橙瓜码字)', '대작가(大作家)'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자동 레이아웃 설정, 명명무작위 명명, 민감한 단어 검색, 아웃라인 어시스턴트, 세부 묘사 등과 같은 다양한 보조 기능을 제공하여 웹소설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글쓰기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며, 작가의 창의력을 더욱 자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GPT가 등장한 후, 이 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인공지능의 적용은 창의력의 향상과 혁신 능력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계적, 규칙적, 반복적 혹은 일상적인 작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모두 처리될 때, 인간의 역할은 오직 혁신뿐이라 할 수 있다. AI의 참여는 사람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로 혁신의 빈도와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AI는 또한 사람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세계 설정을 구상하거나 초안을 작성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통합하여 추가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인간과 협력한다.

AI의 등장은 전문 작가가 되는 장벽을 높일 수 있으나, 반면에 일반인들의 글쓰기의 장벽을 현저히 낮출 것이다. AI의 도움으로, 누구나 쉽게 글쓰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따라 '주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은밀한 요구에 알맞는 맞춤형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학 창작은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4. 차이원샤오멍(彩雲小夢)과의 협업-- HCI 글쓰기의 초보 실습

이상에서의 추론은 아직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다. 현재 필자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2021년에 필자가 주도한 베이징 대학교 네트워크 문학연구 팀이 실시한 HCI 글쓰기 연구의 실습 사례이다. 2021년에는 GPT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인간과 컴퓨터 간의 HCI 분야는 이미

풀만큼 영적이지는 않지만 '곡식'과 '건초'는 자격을 갖춘 인터넷 글에 속하며 독자의 일반적인 소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와 협력한 차이원샤오멍(彩雲小夢) 기업은 매우 유명한 과학기술 회사로 웹소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AI 글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연작'이라는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초기 텍스트를 입력한 이후, 소프트웨어가 여러 연작 옵션을 생성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옵션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거나, 만일 모든 옵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생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작가와 소프트웨어 간의 협력적인 창작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차이원샤오멍(彩雲小夢)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비비 글쓰기 팀'(담당자: 리하오잉, 李皓穎, 석사과정)이 주도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디디(滴滴) 택시'의 서비스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아 개인 맞춤형 글쓰기 활동을 개발한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독자는 작가에게 특정 '주문'을 하고 이에 관련된 대략적인 개요나 시놉시스를 제공하면 작가는 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소설을 작성하고, 완성된 작품은 독자에게 전달되어 리뷰 및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인 과정을 아래와 같다.

유형: 원작 또는 팬픽션

성향: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간 외의 생명체나 로맨스가 배제된 세계관 구성이 가능 (로맨스, 하렘, CP 없음, 비인간 등)

원하는 스타일: 스릴러나 공포(텍스트 스타일 또는 장르)

인물설정/요소/스토리: "장군은 상급자로부터의 명령을 받아 원시 부족을 정복하러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곧 제물로 바쳐질 아름다운 인간 제물을 얻게 되는데..."

'비비 글쓰기 팀'과 차이원샤오멍(彩雲小夢)과의 협업은 팀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시작 부분을 제공하고, 샤오멍과 교대로 전체 글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샤오멍과 함께 글을 쓰는 소감이 어땠나요? 샤오멍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감, 그리고 차이원샤오멍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비비 글쓰기 팀'의 구성원들은 작업에 대한 소감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맥락과 배경에서 샤오멍의 연작은 캐릭터나 플롯의 진행과 비교적 일치하였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의 팬픽에서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에드워드 사버린을 원작 캐릭터로 설정하였을 경우, 두 인물은 영화에서도 총명하게 표현되었다. 샤오멍은 두 사람의 관계

에 대해 '넌 내 유일한 친구야'라는 글을 썼고, 작가는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특정 주제나 감정에 몰입하는 능력에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적절한 인물 표현과 주제의 이해는 일반적인 배경에 제한되어 있으며, 동화나 크툴루 신화와 같은 비전형적이거나 복잡한 배경에서는 샬오명이 그리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AI는 디테일의 확장과 부각에 능숙한 능력을 보였다. 샬오명에게 특정 장면을 제공하면, 해당 장면의 세부사항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샬오명은 앞뒤 줄거리가 호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 미소는 마치 어렸을 때 콜라를 마신 표정 같아'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앞 내용의 줄거리와 맞물린다.

셋째, AI는 새로운 주제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능력,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캐릭터와 장면을 창조할 수 있다. AI는 텍스트에 갇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동적인 상황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창조적 요소의 도입으로 문학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동시에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 샬오명은 복잡한 전개와 우여곡절을 지나치게 선호할 때가 있으며, 샬오명이 지속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끊임없이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야기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의 일관성과 조직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할 때, 샬오명과 같은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영감과 방향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샬오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연작 모델은 사용자가 이야기의 시작부분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제한적인 방식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완전한 '셀프' 작성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장편 소설의 경우 샬오명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인물에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샬오명은 '평행 세계(平行世界)'라는 새로운 모드를 개발하여 일부 페르소나, 캐릭터 관계 및 세계 설정을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설정을 기반으로 무한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특정 설정 내에서 만들어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수많은 평행 세계라고 한다.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설정이 잘 짜여진다면 다양하고 무수한 작품을 연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 시도에서는 이 모드가 효과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소녀게임의 플롯을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며,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설정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계속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해당 실습에서 참여자들은 AI가 글쓰기 과정의 보조자에 가깝고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까지의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의 실험 연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자금, 연구 인력, 기술적 한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저자 약력

소연군(邵燕君): 북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북경대학교 최우수 지도교수(2019년), 북경대학교 문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 현대 문학 비평, 문학 생산 메커니즘이며, 2011년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문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울어진 문학장 - 중국 현대 문학 생산 메커니즘의 시장화 전환』, 『네트워크 시대의 문학 인도』, 『네트워크 문학의 새로운 문법』 등이 있다. 그 외에 『네트워크 문학의 고전 해석』, 『벽을 넘는 책 - 네트워크 문화의 키워드』, 『네트워크 문학 20년 - 선집/우수집』, 『중국 연례 네트워크 문학 (남성 선집/여성 선집) 2015/2016/2017/2018-2019/2020-2021』, 『창시자들의 이야기들: 네트워크 문학 웹사이트 창립자 인터뷰록』, 『중국 네트워크 문학 연대사』 등을 편집하였다.